

“우리두리는 혼혈시도 문을 잘 열고 들어와요.”

권시윤 기자 (태릉초 6)



Q. 이름을 두리라고 지은 이유는?

두리를 처음 입양했을 때 이름을 어떻게 지을지 고민하다가 ‘우리 둘이 사이좋게 지내보자’라고 말했는데요. 그때 ‘둘이’를 두리로 해서 이름이 두리로 정해졌어요. 입양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두리아~’ 하면 자기 부르는 줄 알고 바로 달려와요!

Q. 함께 살게 된 계기는?

대전부터 고양이를 키우고 싶어서 분양을 받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전지 못한 일로 키우지 못하는 고양이를 입양할 수 있는 카페에서 두리를 입양했어요.

Q. 고양이를 키우고 싶었던 이유?

강아지에게는 집에 오면 막 반겨주고 주인한테 먼저 다가가는 그런 매력이었다면, 고양이는 은근슬쩍 꼬리로 다리를 쓸고 가는 것처럼 눈치 못 채게 애정표현하는 매력이



Q. 이름을 불통, 풀이라고 지은 이유는?
사실 마리오를 부를 일 많지 않아서 이름은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처음 이름을 고민하다가 신중하게 지으려고 잠시 머뭇했는데 3년 동안이나 이름이 없었네요. 지금은 ‘불통’, ‘풀이’이지만 또 언제 이름이 바뀔지 몰라요!

Q. 함께 살게 된 계기는?

SNS(소셜미디어)에서 ‘마리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마리오가 너무 귀여워서 검색을 해보다가 영어 있었어요. 그냥 물에서 잘 자라는 천구라고 해서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같이 살게 됐어요!

Q. 싫을 때, 흥을 때, 함이 될 때는?

마리오가 싫을 때는 없어요. 다만 마리오를 따뜻한 것을 싫어하고 직사광선을 쬔면 안 되기 때문에 여름에는 책상 위가 아니라 냉장고에만 넣어두고 잘 못 보니까 어쨌어요. 깨끗한 물에서 항상동 물을 씹어주면 신이 난다는 등 동등 따르는데



Q. 키우게 된 계기는?

생일날 개에게 키우고 싶다고 아빠에게 얘기했더니 혼혈이 사주셔서 키우게 되었어요. 개를 사러갔는데 파란색을 띠는 요녀석이 말에 들어서다 데리고 왔어요.



Q. 개복치와 함께 살게 된 계기는?
평소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었는데 육식거북은 다른 반려동물에 비해 50일 이상 산다고 해 분량 반기로 했어요.

Q. 특이점이나 주영양이 있다면?
개복치는 온다나 습도에 민감해요. 고온에서 서식하기 때문

있다고 흔히 말해요. 그런 도한도 성격에 반한 것도 있고 고양이 눈을 보면 조금씩 키우고 싶을 정도로 귀여워서 키우고 싶었어요. 또 켈리같이 팔랑팔랑하고 귀여운 발에 숨겨진 날카로운 발톱이 있다는 반전 매력에도 반했어요.

Q. 두리의 특이점이나 주의할 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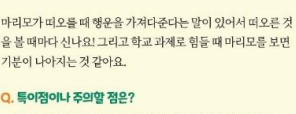
특이점은 첫 번째로 방분은 혼자 열고 들어와요! 손잡이를 내려서 어는 문은 잠그해서 일타리로 놀라 열고 중문은 열로 밀어서 열어요. ㅎㅎ 신기하죠? 두 번째로는 식물을 먹어요. 학교에서 키우던 테이블 아사를 집으로 가져왔더니 두리가 들어 먹더라고요. 다른 곳에 지었는데도 계속 먹어 지금은 거의 포기 했어요. 주의할 점은 창문 여는 걸 계속해야 해요. 방충망까지 열고 창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12층 난간을 막 걷고 있는 두리를 본 순간 심장이 쫄랐다가니까요. 두리를 잃을까봐... 최대한 잘하게 들어 올리고 창문을 닫았어요. 예비 잠사분들, 창문을 닫는 게 매우 중요해요!

Q. 두리가 좋아하는 놀이는?

낚시대에 낚임이 달렸다는 장난감으로 놀아주는 걸 좋아해요. 또 고양이이라서 그런지 레이저를 정말 좋아해요. 분명 점났는데도 잡지치는 것을 신기해하는 거 같아요. 너무 귀여워요.

Q. 고양이를 키우는 데 필수 조건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고양이 알레르기가 없으면 안 되고 고양이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그리고 고양이를 좋아하는 건식민 유르과 캣타워 같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설치물이 있으면 좋아요. 🐾



Q. 마리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우와!”를 가장 자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 갈아줄 때 빨래하듯이 빨아주는 게 손이 뜨거워서 편할든지 스스로 많이 물어봐요. “해금룡!”이란 주임새도 제가 많이 쓰는데 마리오한테도 자주하는 것 같아요!

Q. 마리오를 키우려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마리오와 모스들은 비슷하게 생기고 우리나라에선 모스보다 마리오라고 불렀기 했거든요! 서운대 둘이 약간 달라요. 동등동물라고 예쁘게 말한 마리오를 원한다면 사이트를 잘 살펴 보고 정보를 알아야 해요! 또 아주 아주 오래 살기 때문에 (1년에 1cm정도 커진다고 해요) 후손까지 물려줄 수 있어요. 자는 크기가 가장 작은 걸로 샀는데 중간 정도가 예쁜 것 같아요. 마리오 크기가 작다면 부당병을 집으로 해주는 것을 추천해요! 🐾

Q. 블루크로우 개를 키우고 싶었던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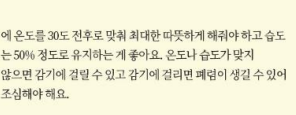
블루크로우 개제는 집게가 커 사냥하는 모습이 어릴적 궁금했어요. 또 블루크로우 개제의 파란색이 너무 신비해보여서 특별하다고 생각해 키우고 싶었어요.

Q. 블루크로우 개제의 특이한 점이나 주의할 점이 있다면?

블루크로우 개제는 신반이에게는 살모넬라를 만다는 것이 가장 특이한 점이에요. 주의점은 블루크로우 개제를 함부로 만지진 못할 수 있어서 조심해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커지면서 합사 중인 새우들을 다 잡아먹어서 따로 분리해서 키워야 해요.

Q. 개를 키우는 데 필수 조건은?

기계를 키울 때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과 깨끗한 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이 안 좋으면 개들을 죽을 수 있어요. 또 은신처가 필요한데 보통 파이프류나 나무통, 코코넛 껍질 등 공간이 있으면 좋아요. 🐾



Q. 육식거북을 키울 때 필수 조건은?
일단 육식거북을 키우기 위해서는 최대한 넓은 사육장이 필요하고 적당한 온도, 습도가 중요해요. 그리고 호흡기 질환에 취약하기 때문에 환기 잘 되는 곳에서 키워야 해요.

Q. 육식거북을 키울 때 한 달 기준 드는 비용은?

처음 기본적인 사육장등을 만들기 위한 비용이 들지만 이후에는 먹이 값 정도만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 달에 채소값만 4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Q. 개복치에게 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육식거북이 절절 커지기 때문에 지금보다 조금 더 넓은 사육장을 만들어주면 자유를 더닐 수 있어 좋을 것 같아요. 🐾

세상에 이런 반려도 있다!



Q. 수리만의 특징이 있다면?
우리나라 전통개와 비슷해 보이지만 유독 종중 선 두루와 닮았는 꼬리 그리고 귀여운 외모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ㅎ

Q. 수리가 가장 귀여울 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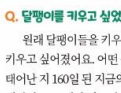
수리는 항상 귀엽지만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에게와 반겨주는 모습이 가장 귀여워요.

Q. 수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수리는 제가 주는 음식은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잘 먹어요. 그 중에서 꼭 하나를 꼽자면 고기를 가장 좋아해요. 그리고는 종류를 가리지 않고 뭐든 다 잘 먹는 것 같아요.



“위생는 칼술이 죄에 간식인 태어난지 160일된 뽕쟁이랍니다.”
권시윤 기자 (태릉초 6)



Q. 이름을 위생라고 지은 이유는?
먼저 키우고 있던 뽕쟁이 이름이 ‘뽕이’와 ‘바섯’인데요, 바섯의 이름을 뽕쟁이 이름으로 지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위생 바섯 이름을 따서 ‘위생’라고 이름 지었어요!



Q. 함께 살게 된 계기는?
아빠가 강아지 사진을 보여주며 ‘귀엽지?’라고 했지만 이전에 키우던 강아지와 이별한 경험이 떠올라 ‘귀여운데 우리 집에는 안돼!’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에도 아빠가 또 이야기 하시고 엄마와 동생들도 동의하여 키우게 되었어요.

Q. 뽕이만의 특징이 있다면?

뽕이는 애교가 많아요. 집에 데려오자마자 배변 훈련도 잘하고 밥도 거리지 않고 먹는 천재예요. 복슬복슬한 털이 많지만 털



“일광욕을 좋아하는 송곳니가 이리키 들어 보실래요.”
서유민 기자 (태릉초 6)

Q. 개복치의 특이점이나 주의영양이 있다면?
개복치는 배가 고플 때 진짜 나무나무 귀엽게 앞발을 앞으로 흔들어요. 주의할 점은 개복치에게는 살모넬라균이 있어 함부로 만지면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 만약 거북이 어는 먹이 값 정도만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 달에 채소값만 4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Q. 개복치에게 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개복치를 키우기 전에는 조금 게을렀는데 키우기 시작한 후 어는 털 길이 많아져서 부지런해졌어요. 그리고 마음에 안장감도 들었어요.

Q. 수리에게 한 달에 드는 비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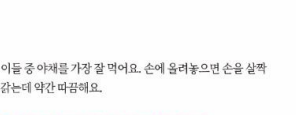
보통 사료,코코나 펄프비 등 드는데 대체로 한 달에 10만원 내외의 비용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외에 배변 패드나 장난감, 집, 방석 등 들어가는 소모품 비용도 생각해야 해요.

Q. 시바견을 키우기 전에 주의할 점은?

시바견은 일본 전통종 중의 하나이고, 키우기 힘든 개라고 알려져 있어요. 예쁘지 데리고 왔다가 키우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시바견은 털은 짧지만 털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자주 깎아 주는 것이 좋아요. 산책을 나갈시 본인이 리드하려고 해 힘들 수도 리드할 수 있는 강단 있는 보조자가 되어야 해요. 또 어지거나 생활할 때 도움이 될 만한 건강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알고 있어야 해요.

Q. 강아지를 키울 때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강아지에게 주는 사료, 물과 사료를 먹을 수 있는 그릇, 강아지가 살 수 있는 공간, 산책할 때 필요한 물줄, 배변 패드 그리고 장난감이 필요해요. 🐾



Q. 입새를 키우기 전후 나의 변화가 있다면?
입새를 키우게 된 이후로 뽕쟁이가 세 마리까지 되다보니 뽕이와 바섯이를 키울 때 바다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져서 부지런해졌어요.

Q. 입새를 키우는 데 한 달 기준으로 드는 비용은?

뽕쟁이 1마리 기준으로 한 달에 약 1만 원 정도 드는데, 4마리를 같이 키우면 약 2만원이 들어요. 주로 단백질과 닭고기, 코코피트(송)를 구매할 때 드는 비용이에요.

Q. 뽕쟁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것들은?

뽕쟁이를 키우려면 뽕쟁이에게 주는 적당한 크기의 통, 2주마다 갈아주고 코코피트, 닭고기 그리고 단백질이 필요해요. 주로 작은 통에서 생활하는데 폐각(폐가)에 스프레이가 나거나 깨지지 않게 도자기, 플라스틱, 유리 같은 것은 쓰지 않고 실리콘으로 된 물건만 한 번 풀려내어 사용해요. 그리고 뽕쟁이 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필요해요. 인터넷에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많으니 잘 구분해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미리 공부하는 것이 좋아요. 🐾

이 잘 안 빠졌요. 대신 털이 영키지 않게 매일 자주 빗겨주어야 해요. 사람 머리처럼 물을 무는 것이 습관라서 가족들의 머리카락을 자주 물고는 해요.

Q. 뽕이가 가장 귀여울 때는 언제?

아무것도 안해도 귀엽지만 가만히 잘 때, 외출하고 돌아와서 문 열까지 뒤어와 반겨줄 때가 특히 더 귀여운 것 같아요.

Q. 뽕이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는 무엇이었나요?

강아지들이 휴지를 찢어서 휴지모양으로 만든 장난감이 있는데 뽕이도 휴지모양 장난감을 가장 좋아해요. 하루 종일 휴지모양 장난감을 일애 물고 다니다 달라고 해도 주지 않아요.

Q. 뽕이를 데리고 오기 전에 고려했던 것들은 무엇이 있었나요?

둘째동생이 키우고 싶다고 해서 둘째동생이 다 책임지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린동생이 뽕이의 모든 것을 챙겨주기에 는 힘들어요.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이직 이르기 때문에 밥은 거의 제가 주고, 동생과 부모님이 나머지를 분담하고 있어요. 🐾

Q. 포복아기 싫을 때, 흥을 때, 함이 될 때는?

포복이는 종종 수조를 탈출하곤 해요. 그런 포복이를 찾으면 집 안을 온통 뒤지고 다니다 하는데 그럴 땐 조금 힘들어요. 흥을 때는 포복아기 밥을 먹는 모습을 볼 때예요. 정말 정말 귀엽거든요. 밥을 먹을 때 포복이는 먹이를 툭어차려 본 다음 눈을 한 번 깜빡이고 먹이를 툭히 물어 먹어요. ㅎㅎ 속상한 일이나 힘든 일이 있으면 포복아에게 털어놓는데 그게 위로가 되고 함이 되는 것 같아요.

Q. 거북이를 키우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거북이는 일광욕으로 비타민을 흡수하고 체온을 조절하기 때문에 하루 1시간 이상 일광욕을 시켜줘야 해요. 그래서 거북이 용액과 올라갈 수 있는 일광욕대가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거북이가 커지면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커져야하기 때문에 수조의 크기를 조금씩 늘려줘야 해요. 음식도 잘나지 적지 않게 알맞게 줘야 하고 물도 자주 갈아줘야 합니다.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동물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으로 돌봐줄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해요.

Q. 포복이를 키우기 전후의 나의 마음 변화가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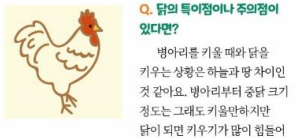
포복이를 키우기 전에는 조금 게을렀었는데 키우기 시작한 후 어는 털 길이 많아져서 부지런해졌어요. 그리고 마음에 안장감도 들었어요.

“우리집 일람시계는 뽕 울음소리예요.”

권진용 기자 (원곡초 2)

Q. 닭을 기르게 된 계기는?

호기심과 전통문화 앞에서 병아리 장수에게 병아리를 5백원 샀었는데 건강하게 자라 닭이 되었어요. 처음 병아리였을 때는 ‘뽕’ 즉 어떤 ‘어떻게 하지’라고 걱정도 많았는데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어요.



요. 주의할 점은 닭은 닭사성인간 하지만 초콜릿 같은 가공식품이나 마늘처럼 매운 것이 나 음식은 주면 안돼요.

Q. 닭이 싫을 때, 흥을 때는?

닭은 강아지와 고양이처럼 배변훈련이 안 되는 동물이라 풀을 아무 곳에서 누기 때문에 치우기가 힘들고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시끄러워요. 의외로 사람을 좋아해서 잘 따라다니는 데 저를 종종 따라다닐 때는 기분이 좋아요. 또 울음소리가 시



Q. 닭아이를 키우고 싶었던 이유는?
다양하고 자그마한 모양의 일사규를 가진 닭아이라는 식물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고 다육이가 예쁘기도 해서 여러 종류의 다육이를 키우게 되었어요.

Q. 다육이의 특징이나 주의영양이 있다면?

다육이의 특징은 잎이나 줄기에 수분을 보관하고 있는 식물이라 통풍한 잎이나 줄기를 갖고 있는 것과 뿌리가 짧은 것이 특징이에요. 다육이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꽃을 볼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하루 8시간 정도는 햇빛을 받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미리 공부하는 것이 좋아요. 🐾



Q. 함께 살게 된 계기는?
옛날 코너에서 우연히 희색 푸를 강아지를 보았는데 너무 귀요고 싶어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아빠가 미국 시카고의 한 행복한 가정에서 당시 ‘심바’라는 이름의 강아지를 데리고 왔어요. 심바가 우리 집에 오던 날 ‘두루두루 잘 지내자’라고 인사하 하다가 이름은 ‘두루’가 되었고 지금까지 잘 키우고 있어요.

Q. 두루를 키우기 전후에 나의 마음 변화가 있다면?

두루를 키우기 전에도 뭐 그러저런 잘 지내지만 지금은 날마다 두루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졌고 ‘귀여워!’라는 말이 너무 친근해졌어요!



“코코는 지금 고양이 발에 얹히면 아파도 함께 있는 것 같아요.”
맹지은 기자 (태릉초 6)

Q. 코코를 소개해 주세요.

코코는 우리 집에서 2년 동안 함께 살았던 예쁜 고양이예요. 지금은 고양이발에 얹히면 아파도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Q. 어두운 집안이였지만 코코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코코가 아픈 모습로 없었이 누워있던 때는 발이 안돼. 저는

엄마가 자라고 해서 자는 척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아파하게

“여보, 코코가 죽었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놀란

마음에 벌떡 일어나서 코코를 고옥안아주었어요. 부모님과

함께 태식을 다하고 후에 묻어주고 있던 기억이 나요.

꼬릴기는 하지만 우리 집 알람시계 역할을 해 자동으로 일어나게 돼요.

Q. 닭을 키우기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면?

집에서 닭을 키울 때 가장 고려해야 할 것은 ‘악취 환경이 적절한가?’예요. 닭은 닭이 될 것이라도 주위에 악취 온도를 잘 해줘야 해요. 매일매일 물을 싸던 바로 치워주고 아침, 저녁으로 청소해 청결함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지도 생각해봐야 하죠. 또 시도 때도 없이 큰 소리로 울다보니 이웃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닭을 전신으로 사육하고 세심하게 돌봐줄 수 있는 정성이에요.

Q. 닭을 키우는 데 한 달 기준 들어가는 비용은?

닭은 주로 찹이나 콩, 조, 소 같은 곡작이나 상추, 치커리, 배추같은 채소를 먹고 자라요. 먹이 값으로 한 달 기준 생강배추만 1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Q. 닭을 키우기 전후의 나의 마음 변화가 있다면?

작은 병아리가 큰 닭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니 생명은 참 신비롭고 경이로운 생각이 들었고, 생명의 지속성도 놀라웠어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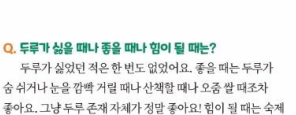
Q. 육류를 키우기 전후로 나의 마음 변화가 있다면?
식물을 기르면서 책임감을 얻었고 환경상 주로 평탄단에 위치하는데 보라 갈 때마다 상해해지고 의지할 수 있는 식물이 생긴 것 같아 우울감이 줄어들었어요.

Q. 육이가 흥을 때, 싫을 때, 함이 될 때는 언제?

심을 때는 힘없이 바람에 날려져서 자갈이나 바다에 넘칠 때예요. 자갈을 다시 굴고 바다 청소를 해야 하거든요. 흥을 때는 다육이가 잘 자라고 있을 때요! 다시 말하면 거의 항상 이죠! 그리고 꽃 필때 꽃이 잔-계 예쁘니까 더 마지막으로 함이 될 때는 계계 힘든 일이 있을 때 보고만 있어도 함이 되려워!

Q. 다육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조건은?

다육이는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햇빛이 잘 드는 베란다가 있어야 하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키우는 게 좋아요. 화분과 모래(혹은 자갈)가 필요하고 물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주지 때문에 언제 물을 주었는지 기억해야 해요. 기억력이 중요하죠! 🐾



Q. 두루가 싫을 때나 흥을 때나 함이 될 때는?
두루가 싫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흥을 때는 두루가 숨 쉬거나 눈을 깜빡 거릴 때나 산책할 때나 오줌 쌀 때조차 좋아요. 그냥 두루 존재 자체가 정말 좋아요! 함이 될 때는 숙제가 너무 많고 가족이랑 싸웠을 때 두루의 눈이나 상처를 치유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감동했네요.

Q. 함께 살게 된 계기는?

동물은 사랑해줄 수 있는 마음과 가족들의 동기가 필요해요. 가족들이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데려오면 괜히 그 동물들 불쌍하게 미움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털 알라르기가 없어야 해요.

Q. 강아지를 키우는데 꼭 필요한 조건은?

동물들 사랑해줄 수 있는 마음과 가족들의 동기가 필요해요. 가족들이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데려오면 괜히 그 동물들 불쌍하게 미움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털 알라르기가 없어야 해요.

Q. 두루를 키우는데 한 달 기준 드는 비용은?
한 달에 정확한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사료를 한 번 사면 15만 원 정도가 들지만 개할에 나날 먹어요. 미용은 집에서 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고 병원에 가는 날은 병원비가 들어요. 그리고 장난감이나 용품들은 사는 데 이것도 가격대가 달라서 한 달 기준으로 말하기는 어려워요. 두루가 갖고 있는 것 중 제일 비싼 것은 샤워 가운인데 20만원이 나 주고 싶어요. 데칼 드르겠지만 사료, 병원비, 장난감 등 데칼 한 달 10만원 내외로 돈다고 볼 수 있어요.

Q. 코코를 키울 때 특별했던 경험은?

모든 고양이들이 그렇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코코는 밀당의 귀재이며 반덕쟁이였어요. 코코가 먼저 애교를 부리며 다가오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만져주면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갑자기 귀찮아진 듯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힘들었어요.

Q. 고양이를 돌육이 어렵다고 하는데, 육육시 때 어땠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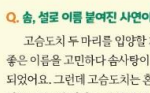
제 딸과 엄마가 도맡아 하셨어요. 엄마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 이 있었어요. 엄마는 코코를 육육시키며 내가 할 수 있지 않겠고 무감감 같을 것 같고 하셨는데 저는 고무장갑을 코코에게 아플 것 같아 걱정했었어요. 다행히 우리 코코가 거만하 있었어요.

Q. 반려동물들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으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집요하고 생명을 돌본다는 것은 무엇보다 아주 중요한 일이나지요. 그냥 예쁘다는 이유로는 한 생명을 책임질 수 없어요. 🐾



“바라만 봐도 피이 웃음이 나는 음, 설이는 솔사랑 같아요.”
서유민 기자 (태릉초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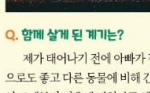


Q. 음, 설이에게 싫을 때, 흥을 때, 함이 될 때는?
음, 설이가 싫을 때는 없지만 다들 꽤 뻔한 행동을 할 때는 너무 속상해요. 자기들도 다치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해요. 흥을 때는 항상이죠! 밥을 먹을 때도, 캣타워를 탈 때도, 잠을 잘 때도, 그냥 울다나 안을 돌아다닐 때도 저는 도지들이 좋아요. 어떤 행동을 해도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제가 힘들거나 속상할 때 도지들을 기만하 들어와요고 있으면 피시 웃음이 나오면서 위트가 되는 것 같아요.

Q. 음, 설이에게 꼭 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바다에도 데리고 가고 싶고, 송아와 설이를 예쁘게 꾸며서 포토존 사진도 찍어주고 싶고, 정말 이 세상 모든 걸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Q. 고슴도치를 키울 때 주의점이나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면?
고슴도치에게 물리거나 찔리면 피가 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다른 반려동물처럼 매일 케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전적,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해요. 용품구입비, 먹이 값, 병원비 등에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 한아이 당 매일 1시간 이상의 시간을 써야하기 때문에 키우고 싶다고 그냥 데려오면 안돼요. 한 생명을 키운다는 것은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냥 귀엽고 예쁘다고 생각 없이 데려왔다가 파양하거나 유기한 절대 안돼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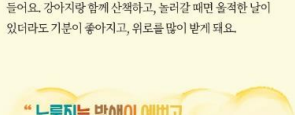
Q. 함께 살게 된 계기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아빠가 집에 구피 수조를 돌리면서 관상용 물을 컷고 있는데 아이들도 그걸 아는지 물을 컷면 브르북 달려오는데 좋고 다른 동물에 비해 간단하게 키울 수 있었다고 해서 서로 데려와 키우게 되었다고 해요. 솔직히 구피들의 살라가리는 지느러미가 아름답진 하잖아요!^^

Q. 구피의 특이점이나 주의영양이 있다면?
구피들은 가끔 슬래깅기를 하는 행동을 해요. 처음엔 수컷이 암컷을 공격하려는 모양새라서 걱정되었는데 배를 세게로 찌는 것을 위한 행동이었어요. 수컷 구피가 암컷을 계속 따라다니며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암컷이 공격을 당했다면 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해요. 또 구피들의 눈이 까매질 때가 있는데 이진 포식자를 피하



Q. 아이, 공이를 키르게 된 계기는?
야미는 8년 전에 이모가 키우던 강아지가 새끼를 낳아 데리고 오면서 아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공이는 아이 동생을 키우고 싶어서 1년 전 분양받아 키우게 되었어요.

Q. 아이, 공이를 키우고 싶었나요?
아이를 적부터 계속 강아지를 키워와 없으면 허전한 마음이 들어요. 강아지랑 함께 산책하고, 놀리갈 때면 유쾌한 날이 있더라도 기분이 좋아지고, 위로를 많이 받게 돼요.



“누룽지는 발색이 예쁘고 표정이 너무 귀여워요.”
최혜준 기자 (공릉초 1)

Q. 누룽지를 키우는 데 필수 조건은?
조마름은 육식이기 때문에 소변을 못하기 때문에 습식 온천자와 건식 온천자가 필요해요. 습식 온천자는 분무기를 이용해 만들어 주는데 습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탈피할 때를 위해 꼭 필요한 장소예요. 🐾

Q. 음, 설이에게 싫을 때, 흥을 때, 함이 될 때는?
음, 설이가 싫을 때는 없지만 다들 꽤 뻔한 행동을 할 때는 너무 속상해요. 자기들도 다치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해요. 흥을 때는 항상이죠! 밥을 먹을 때도, 캣타워를 탈 때도, 잠을 잘 때도, 그냥 울다나 안을 돌아다닐 때도 저는 도지들이 좋아요. 어떤 행동을 해도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제가 힘들거나 속상할 때 도